“마음법 배울 한마음유치원, 구정탑과 함께 우뚝”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3월 25일 ‘구정탑 제막식 및 유치원 준공식’을 대웅보전아래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사진 왼쪽 세 번째)과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사진 왼쪽 두 번째)이 구정탑 제막을 진행하고 있다.



혜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유치원 불사를 통해 마음법을 아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석한 스님들이 ‘자성본래불’ 정근과 함께 구정탑 탑돌이를 시작하고 있다.



한마음유치원 준공식에 참여한 스님들과 내빈들은 테잎을 커팅하며 인재불사를 발원했다.

[현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구정탑 제막식 및 유치원 준공식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대행 스님의 음성 법문을 듣기 위해 입정으로 마음을 고르던 대중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죽비 삼아 눈을 떴다. 그리고 대행 스님의 법문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서천국 아미타불과 한도량에 있어요. 탑돌이를 할 때는 주인공 만이 나를 바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체를 주처에 몰아넣는 마음으로 돌면 됩니다. 자기 탑은 자기가 쌓는 겁니다...(중략) 우리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교과서도 마음의 핵심으로부터 나가야 하고요. 유치원생부터 마음의 교과서가 나가야 합니다”

구정탑이 모습을 드러냈고 ‘한마음 유치원’이 문을 열었다.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화엄경〉의 말씀처럼 대행 스님의 원력이 세상을 도화지 삼아 이뤄지는 현장을 2000여명의 대중이 바라보고 축하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3월 25일 ‘구정탑 제막식 및 유치원 준공식’을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이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뉴욕지원 원공 스님 등과 한마음선원 본원 및 지원의 여러 대중 스님이 참석했다. 또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 공한수 부산시의회 의원, 한마음선원 본원 명을식, 김화남 前신도회장 등 신도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먼저 삼귀의 및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 독송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과 개요가 대중에 소개됐다.

또 구정탑 불사와 한마음유치원 건립을 위해 노력한 이정근 (주)영동 대표이사, 김한열 (주)보광석재 대표이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윽고 제막의 순서가 다가왔다. 대중들이 함께 목소리 높여 불법승을 외치자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뜻을 담은 둥근 모양의 9층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주석으로 조성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구정탑은 석공이 직접 손으로 쪼는 ‘고운 정다듬 공법’으로 시공돼 다른 화강암 보다 따뜻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구정탑이 세워져있는 앞마당과 대웅보전으로 잇는 서하교 계단에 대중들은 빼곡히 서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합장하며 마음을 모았다. 내빈들의 헌화에 이어 박해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장의 발원문 낭독을 대중들은 함께 하며 내 안의 스승에 귀의하는 탑돌이로 끊임없이 내면을 밝혀갈 것을 서원했다.

기념사와 인사말 그리고 축사도 이어졌다. 혜수 스님은 “구정탑은 세상만사가 통하는 길이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원에 최초로 세워주신 구정탑과도 통신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 같다. 부산지원이 10여년 간의 법당 불사에 이어 유치원 준공식을 여니 이 도량이 꽉 찬 듯하다”며 “앞으로 도량을 수호하고 이어지는 불사와 더불어 마음 불사도 잘 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오늘 모셔진 이 탑은 일체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셨던 큰스님의 원력과 자비로 우뚝 선 것이다. 자기의 탑은 자기가 세우는 것이라 하셨던 가르침을 더욱 새기고 내면의 근본을 떠나지 않은 마음의 탑돌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잠시 감격으로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한 혜도 스님은 대행 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듯 눈물을 삼켰다.

대행 스님의 원력 담은
구정탑과 한마음유치원 불사
“마음의 교과서 일러 줄 도량”
전국서 2000여 대중 모여 축하

스님은 “지난 3월 2일부터 한마음유치원이 문을 열어 마음법을 접목한 유아교육의 새장을 열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공생의 마음을 쓸 줄 아는 미래의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하며 참석한 모든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은 “오늘 제막하는 구정탑은 부산지원의 신행활동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부산 불교 더 나아가 한국 불교의 상징이 될 것이다”며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은 불교계에 유치원은 앞으로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미래 포교의 희망이다”라고 축하했다.

제막식 마지막 순서에서는 앞으로 끝없이 이어질 탑돌이의 시작을 알리며 참가한 스님들이 ‘자성본래불’ 정근과 함께 탑을 돌았다.

제막식 후 한마음유치원 앞으로 다시 모인 대중들은 화합재로 축하하고 테잎 컷팅식으로 유치원 개원을 축하했다.

유치원은 약 600여평의 규모로 지상 2층엔 교실 및 교육 시설 공간과 지하 2층은 넓은 주차장을 마련해 어느 누구나 편히 방문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건물 아래에 조성된 텃밭에는 3월에 입학한 아이들의 손길로 자란 야채들이 있었으며 복도 끝에는 신나게 뛰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원할 정도로 규모가 넓은 7개 교실은 아기자기한 교육 용품과 의자와 책상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었으며 안전함을 신경 쓴 소품과 아이들의 작품에 대중들은 미소 짓고 부러워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행단체 심정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예태순(68)불자는 “저희 손녀는 양산지역에 있어 너무 멀어서 여기 까지는 못 다닌다. 너무 아쉽다. 무엇보다도 주인공 자리, 내안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좋은 교육도량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학년과 5학년 두 남자 아이들과 함께 선원을 찾은 이자혜(38)불자는 “어린 자녀가 있었다면 아무 고민 없이 보냈을 텐데”라며 “무엇보다 선생님과 스님 모두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셔서 아무 편견 없이 아이들을 봐주실 것이란 큰 믿음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자 함께 동행한 아이들이 한마음유치원 가방을 멘 꼬마 아이를 발견하고 “저 아이 유치원 다니나봐요”라며 “좋겠다”며 소리치고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마음유치원 가방을 멘 꼬마아이는 5세반에 입학한 옥준석이라고 소개했다. 준석이의 어머니 문서아(32)씨는 “오늘은 유치원 쉬는 날인데 개원식도 보고자 겸사 올라왔다. 사실 이 근처에 살고 유치원이 새롭게 생긴다는 말에 아이를 입학시켰는데 오늘도 가고 싶다고 해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 하원을 할 때도 신을 벗자마자 언제 또 가냐며 반복해서 묻는다”며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혜운 스님은 교육의 목표는 누구나 본래 밝아있는 마음의 힘을 믿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형식의 종교를 초월해 자신의 마음을 시작으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조절함으로써 모든 생명과 공생하는 도리를 가르친다면 형식을 떠나 이것이 불교이며, 아이들이 이를 실천한다면 이미 이 아이는 불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유치원은 2013년 12월 교육환경평가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8월 24일 완공 했다. 2016년 10월 10일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17년 3월 2일 개원했다. 인가인원은 7개 학급 162명이며 강당, 교사실, 조리실, 보건실, 놀이터 및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하성미 기자



가로×세로 15㎝, 1점당 희망가는 10만원이며, 계좌 입금 후 전화주십시오!
국민은행 638701-01-453575 (예금주 : 청담아트월드) ☎ 031-912-7112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에는 매일 성취 등을
밝히며 지장보살 · 관음보살을 뵙습니다!
本人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약사여래불 ·
포대화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모델의 친환경 목재로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실용시안특허를 받아 깎고 다듬고 못 하나 치지 않고 끼움 틀작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혼을 불어 넣은 장인의 작품입니다!
평상시에는 本人이 원하는 등불을 켜두시고 기도시에는 별도카드에 부착된 관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포대화상으로 교체한 후 염원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가피와 원력과 에너지를 듬뿍받아 소원성취하시고 부자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기료는 月50원정도 LED부착)
부디 평생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밝혀 강건하시고 소원성취를 이루십시오!
■ 친척, 친지, 윗분들, 자손들, 도반, 고마운분들, 생일, 생신, 축하선물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집무실, 공부방, 침실, 안방, 거실, 병실에 필, 성취 등입니다!
■ 성취 등 뒷면에는 **띠별호신부(저작권소유)**를 부착해드립니다!

※ 제작과정을 직접보고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을 신청하십시오!
(청담아트월드 총괄기획실장 서재명 010-5669-9572)



현재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기존의 인등을 철수하고
저희 회사의 소형목재 인등으로 교체 불사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스님께서는 동영상을 보신 후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찰담당 상무 : 김수철 010-8881-0474

